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과 일본·한국의 참전 반대 긴급 공동성명

연명 및 제안 단체

노모어 오키나와전 ‘누치두 타카라’의 모임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DSA(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국제위원회
ZENKO(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국교류회)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는 유엔의 결정도 없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짓밟은 일방적인 침략 행위이며, 지역과 세계를 전쟁 확대의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번 공격으로 학교 등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우리는 이 잔혹한 전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이미 이 전쟁에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기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오키나와에서는 주둔 해병대 제 31 해병원정대 5,000 명이 강습상륙함 트리폴리에 승함해 중동으로 파견되었다. 또한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의 이지스함이 오키나와 화이트비치를 경유해 출동하여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에 참여하였다. 오키나와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등에서 미군의 전쟁 거점 및 병참 기지로 사용되어 왔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다시금 오키나와가 침략전쟁의 전쟁 거점이 되고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한국에서도 같은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사드(THAAD)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만약 한국의 기지와 장비가 이란 전쟁에 사용된다면 한국 또한 이란과 적대 관계에 놓이며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구실로 일본과 한국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을 불법적인 전쟁에 동원하고, 지역을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움직임이다.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 민중의 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며,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의 연장선이다. 우리는 이란 민중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지역에서의 군사력 철수와 대화 및 외교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여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함대 파견 등에 나설 경우, 이는 전후 처음으로 자위대 전투 부대가 해외 전쟁에 참전하는 사태가 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이 참전하는 것은 헌법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를 심각한 군사 충돌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자위대원의 생명 또한 희생될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다.

일본·오키나와, 한국, 미국, 대만의 시민사회로서 우리는 아시아의 땅과 사람들이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2. 주일미군·주한미군 기지를 이란 공격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3.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거부하고,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4. 아시아를 다시 전쟁의 거점으로 만드는 군사 체제를 종식시키고, 기지 철거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라.
5. 이스라엘은 가자 학살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 및 정착촌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이 위험한 전쟁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를 전쟁의 거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

2026년 3월 18일
ZHAP(ZENKO 헤노코 반기지 프로젝트) 국제회의